

# 북스

Books

## 세계 80개 무장단체 현장조사 보고서

### 누가 무장단체를 만드는가

클라우스 슈리히테 지음

헤즈볼라, 하마스, 탈레반, 코소보해방군, 체첸반군, 즈비아디스트, 타밀호랑이 등, 2005년 영국 전략연구국국제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28곳 분쟁지역에서 332개 무장단체가 활동 중이다.



독일의 정치학자인 클라우스 슈리히테가 엮은 '누가 무장단체를 만드는가'는 중동 지역을 비롯해 아시아, 남아, 아프리카 등에서 2차 세계대전 이래 생겨난 무장단체들을 정치사회학적으로 연구 분석한 책이다.

우선 저자는 현대전쟁의 주체로 부상한 '비(非)국가 무장단체'에 주목한다. 최근 전쟁양상을 보면 국가 간 전쟁보다 정부군과 무장단체의 내전(內戰),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무장단체 간의 국지적 분쟁이 더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들 무장단체를 저자는 '비국가 무장단체'라고 정의한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불현듯 조망받기 시작했지만 이미 내전 현장에서 존재해온 비국가전쟁주체를 무장단체라는 이름으로 묶고 그들의 정치학을 분석했다.

저자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박사과정 학생 7명과 함께 세계 곳곳을 누비며 현장 리서치와 심층 인터뷰 그리고 적용 가능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총동원해 이들 무장단체가 스스로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과정, 경제화 전략, 제도 안으로 파고드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책에 언급된 무장단체는 80개 단체에 이른다. 우리가 외신을 통해 익히 들었던 무장단체들을 비롯해 세르비아와 우간다, 말리, 세네갈, 라이베리아 등 세



저자는 '무장단체' 문제와 관련 군사적 '해결' 대신 비전쟁 방식으로 분쟁의 해결점을 찾으려면 현지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진은 아프리카 동부의 비밀기지에서 무장하고 있는 탈레반 반군 모습.

계 전역에서 활동하는 이들도 생소한 다양한 무장단체들의 역사와 메커니즘을 현지에서 수집한 생생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뤘다.

책은 무장단체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눈다. 가장 흔하게 폭력적 억압이 낳은 무장단체가 있고,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후 오히려 오히려 모여드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국가 공권력이 지원하는 분쟁의 골치거리인 민병대류 무장조직이 그것이다.

저자는 또 무장단체 참여자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정체성을 지닌 행위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장단체 결성은 사회적 행위이자 고도의 정치적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어떤 단체는 국가 건설을 일구려는 성공적 정치력을 발휘하는 반면 어떤 단체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마는 경우도 있다.

저자는 또 무장단체가 무조건 폭력적이며 테러리스트라는 대다수 학자의 일차원적인 접근법을 거부한다. 1981년 엘살바도르에서 결성된 무장단체 '파

라분도마르티 민족해방전선'처럼 제도권 정당으로 편입돼 대선에서 승리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잡은 사례도 있다는 것.

저자는 "통치력을 향유하고 싶은 것이 무장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무장단체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폭력의 그늘'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결론 내린다.

더 나아가 저자는 무장단체가 연루되는 분쟁을 정치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학자들의 핵심 토론을 넘어서 현장 정보와 분석으로 무장한 것은 이 책의 강점이다.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두려운 주제지만 현장의 생생한 인터뷰와 분기기 전달로 적당한 긴장감을 주며, 세계사의 참상을 다스리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현암사·1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아픈 상처도 보듬어 주는 제주 올레길

### 교과교과 걸어가는 이 길처럼

서명숙 지음

시사저널과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인 서명숙은 나이 스에 기자 생활을 접고 산티아고 길을 걸었다. 산티아고에서 치유받고 위로받은 그녀가 길을 걷는 내내 떠오른 건 쪽빛 바다가 아름다운 고향 제주였다.



제주로 귀향한 그녀는 '올레'라는 이름으로 길을 내기 시작했다. 2008년 그 길을 내는 과정을 담은 책 '놀림 쉬엄 걸으며-제주 걷기 여행'을 펴냈다.

집 대문에서 마을 길까지 이어주는 아주 좁은 골목을 뜻하는 제주방언 '올레'에서 이름을 따온 '올레'는 이제 보통명사가 됐다.

제주올레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서씨가 이번에는 제주 올레를 만드는 사람들과 제주올레를 사랑한 올레꾼들이 이야기를 담은 '교과교과 걸어가는 이 길처럼'을 펴냈다.

책 제목을 따온 제주방언 '교과교과'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라는 뜻으로 올레길을 걷는 이들이 늘 가슴에 새기는 글귀이기도 하다.

책에는 올레길을 걸으면서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을 얻어간 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길을 걷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죽으러 갔다 아름다운 올레길을 보고 다시 살고 싶어졌다는 암환자, 이별 여행을 왔다 다시 사랑을 찾아 떠난 젊은 커플 등 '길'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전해 주었다.

또 한비아·조정래·리영희·이효재 등 유명인들의

제주 올레와의 인연도 만날 수 있다.

서씨는 힘들게 올레길을 개척 중인 자신의 주변에서 언제나 '기적'처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적고 있다.

'하늘에서 툭 떨어진 듯'한 특전사 대원들이 불가능할 것 같을 길을 뚫어주고, 현대카드 디자인팀은 제주올레 마스코트인 조랑말 '간세'를 탄생시켰다. 늘 마음으로 품고 있던 올레길의 지질, 생태, 제주방언, 제주 신화 등 '제주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올레 아카데미'와 '어린이 아카데미' 역시 현실이 돼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올 11월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올레 걷기 축제'를 통해 또 한번의 기적을 꿈꾸고 있다.

〈북하우스·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책



▲재스퍼 존스가 문제다=관견과 위선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고발하는 크레이그 실버의 2008년 작 장편소설. 인간의 권견과 배타성을 그려낸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를 연상하게 하는 작품으로 '왕따'들에게 세상의 부조리에 대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자기 만의 기준으로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는 폭력적인 시선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 〈양철북·1만4000원〉



▲마더 테레사의 하느님께 아름다운 일=영국 언론인 맬컴 머거리지가 1971년 출간해 사랑의 선교회에 대한 폭발적 관심을 이끌어 냈던 기념비적인 책. 테레사 수녀(1910~1997년)의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재출간됐다. 그녀와 첫 인터뷰 한 내용부터 그녀가 설립한 사랑의 선교회가 발전하는 과정, 테레사 수녀가 직접 쓴 글과 명상록 〈시그마북스·1만2000원〉



▲판도라의 상자=60주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인기있는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가 지인의 투병일기를 바탕으로 쓴 소설로 한국어 처음 소개된다. 요양소에서 병과 싸우는 스무 살 청년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다. 〈현인·1만원〉



▲아빠, 그것도 몰라?=뉴욕타임스의 사회부장이자 7살, 3살 난 아들과 딸을 둔 웬델 제이슨이 아이들이 던지는 기상천외한 질문들과 이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모아 엮었다. 저자는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비틀스 멤버 존 레논의 아내 오노 요코를 비롯해 의사, 소방관, 남극기지 대원, 마술사, 영화감독 등 각계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민음인·1만5000원〉



▲살아 숨 쉬는 식물교과서=취급 식민지의 자생지를 답사하고 보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오병훈씨가 30년 동안 우리나라 전국 산천을 직접 찾아다니며 탐구한 식물 20여 종을 깊이 있게 다뤘다. 식물의 생태와 서식지의 환경 조건뿐만 아니라 용도와 민속, 문화까지 담았다. 들꽃이나 나무가 식용, 약용으로 쓰이는 사례와 더불어 문화, 민속학, 자연학적 가치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마음의숲·2만3000원〉



▲물고기 여인숙='길 위의 시인'으로 불리며 14년 간 국내외 오지를 다닌 이용환씨가 4년 동안 국내 섬들을 둘러보고 쓴 여행 에세이. 청산도, 조도, 관매도, 증도, 우도, 울릉도, 독도, 도초도, 낙월도, 추자도 등 34개 섬의 고유한 문화와 매력을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링거스·1만4800원〉



▲이기적 유전자=현대 생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대표작. 진화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 책은 다윈의 적자생존과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을 유전자 단위로 끌어내려 진화를 설명한다. 2006년에 국내에 번역 출간된 초판과 30주년 기념판을 번역과 주석, 용어 등 내용을 대폭 보강해 전면 개정판으로 새롭게 선보였다. 〈유문문화사·1만8000원〉

OPEN

GOLFZON

광주최고 시설 스크린 골프장

자이언트 골프존

자이언트 골프존 521-0071

각종 이벤트 연중 진행 중!